

서부트럭터미널, 46년 만에 탈바꿈 첨단물류-생활 연결한 랜드마크로

서울 양천구 ‘첨단물류단지’ 조성
1.9조 투입, 2030년 하반기 준공
창업센터, 체육센터, 주거시설 등
생활 인프라 결합한 복합공간으로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이 1979년 준공 이후 46년 만에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새롭게 탈바꿈한다. 2016년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6개 시범사업지 중 첫 개발 사례다.

서울시는 4일 오후 서부트럭터미널에서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지역주민 8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개발되는 서부트럭터미널 부지는 10만4000㎡ 규모로, 연면적 79만 1000㎡에 달한다. 총 1조9000억원을 투입해 지하 7층, 지상 25층 규모의 복합 도시형 첨단물류단지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이곳을 단순한 물류시설이 아닌 지역 생활인프라가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자동차 분류 기능을 갖춘 첨단 ICT 기반의 풀필먼트(물류 일괄 처리) 시설을 도입해 상품의 입고·분류·배송 등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신선식품 보관·포장·가공 등을 수행하는 콜드체인 시설과 지역 상생형 공유창고를 함께 조성해 물류 효율을 극대화한다. 기존 트럭터미널의 기능은 지하층으로 이동해 지속적으로 운영된다.

사업지는 매봉산과 신월산 등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형



오세훈(왼쪽 네 번째부터) 서울시장, 이기재 양천구청장 등이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서 열린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기공식에 참석해 시삽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성해 도시경관을 개선한다. 주변 도로도 확장(1~3차로)하고, 오리로 복단 단절도로를 신설하는 등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접근성과 시민 편의를 높인다.

첨단물류단지 안에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생활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창업기업 입주공간, 창업상담·지원실, 회의공간, 휴게공간, 강당 등으로 구성된 창업지원센터(5421㎡)를 조성해 청년창업과 지역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또 수영장, 피트니스룸, 스쿼시, 볼링장, 탁구장, 스크린골프, 실내테니스장 등을 갖춘 신정체육센터(1만7050㎡)를 신설해 주민 복지를 강화한다.

주거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공공임대 98세대를 포함한 총 997세대 규모의 도심형 주택을 공급해 지역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유도한다. 세대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인·허가 과정에서 일부 조정

될 수 있다.

현재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는 행정절차 등 사업단계를 진행 중이며, 향후 양천구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를 거쳐 2026년 하반기 착공, 2030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4일 오후 1시30분 서부트럭터미널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주민 800여 명이 참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랜 세월 서울의 생활물류를 책임져 왔지만 노후시설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쳤던 서부트럭터미널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재창조를 통해 서남권의 대표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홈플러스 공대위·정치권, 정부 개입 요구

인수후보 2곳 ‘자격미달’ 논란
마트노조, 다시 철야농성 돌입
여야 의원들, 정부 책임 촉구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4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전단체 대책 피해자대책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홈플러스 사태에 정부 개입을 요구했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는 지난달 31일 마감 전 복수 기업으로부터 인수의향서(LOI)를 제출받았다. AI 유통 플랫폼 기업 하렉스인포텍과 부동산 임대·개발 업체 스노마드가 인수전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두 기업 모두 자본금에 있어 부실해 인수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홈플러스의 청산가치가 3조원을 넘는 상황에서 유통업 경험이 없는 두 기업에 의문 부호가 붙는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 매출 5억원에 불과한 회사와 부동산 개발업자가 과연 국내 2위 대형마트를 경영할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가”라며 “이는 MBK의 ‘떡볶이 시나리오’를 위한 들러리 참여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이날부로

철야 농성에 돌입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지난 9월 정부가 “선량한 인수자를 찾아보겠다”고 약속했으나, 두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노조 측의 입장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투기 자본에 홈플러스를 넘기는 것은 사회적 재난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정부는 구조조정 능력과 유통 전문성을 갖춘 기업이 홈플러스를 인수하도록 인가 전 M&A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정해경 의원은 “지금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가 앞장서서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공공성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인수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가 파산할 경우 2만명의 직 접고용 노동자와 8만명의 간접고용 인력, 8000여 입점업체, 1800여 납품업체 등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

홈플러스공대위 박석은 상임대표는 “이번 인수의향서 제출은 제2의 떡볶이 시나리오로, 아바위판이나 다름없다”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인천시 ‘제3연륙교’ 세계 최고 높이 인증

해발 184.2m 전망대, 랜드마크로

인천시에 건설중인 제3연륙교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해상교량 전망대로 공식 인정받았다. 세계기록위원회(WRC)가 해발 184.2m 높이의 제3연륙교 전망대를 ‘세계 최고 높이 해상교량 전망대’로 인증하며 인천의 기술력과 도시경관이 세계 기록으로 남게 됐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제3연륙교 전망대가 미국 세계기록위원회(World Record Committee, WRC)로부터 ‘세계 최대 높이 해상교량 전망대(Highest Observation Deck on a Sea Bridge)’ 부문 공식 인증을 받았다.

한국기록원(KRI)의 최고 기록 검증

을 거쳐 WRC의 심사를 통과한 결과, 제3연륙교 전망대가 전 세계 해상교량 전망대 가운데 해발 184.2m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번 인증을 기반으로 영국 기네스 세계기록(GWR, Guinness World Records) 등재 절차도 함께 진행 중이다. 연내 등재가 완료될 경우 제3연륙교는 인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제3연륙교는 단순한 교량이 아니라 인천의 도시경관과 관광자원을 세계에 알릴 대표 상징물”이라며 “개통까지 완성도를 높여 세계가 주목하는 명소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인천=김학철 기자 press412@

수험생 66% 사교육 이용, 성적 높을수록 의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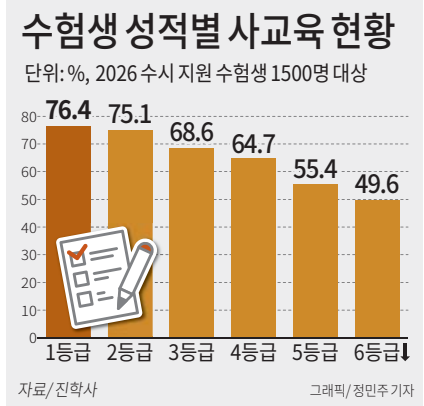
대학입시 준비, 사교육 영향력 여전히
수도권 71.3%, 비수도권보다 1.6배
내신 상위권 학생일수록 의존도 높아

대학 입시 준비 과정에서 사교육의 영향력은 여전히 컸다. 진학사가 올해 수시모집에 지원한 전국 수험생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5.6%가 학원·컨설팅 등 사교육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학생의 참여율은 71.3%로 비수도권(60.2%)보다 1.6배 높았으며, 상위권일수록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는 ‘성적별 격차’도 뚜렷했다.

◆수도권 학생 71.3% “사교육 활용”

응답자의 65.6%가 수시 준비 과정에서 사교육을 이용했다고 답했으며, 이 중 ‘일부 활용’은 48.1%, ‘적극 활용’은 17.5%로 조사됐다. 이는 절반 이상이 공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사교육의 도움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교육을 통해 가장 많은 도움을 받



은 부분(복수 응답)은 ‘성적 향상(내신·수능)’이 70.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대학·전형 정보 제공(26.2%) ▲비교과 활동 관리(15.4%) ▲면접 대비(12.3%) 순으로 나타났다. 즉, 사교육이 단순한 성적보완을 넘어 학생부 관리와 대학별 고사 준비 등 수시 준비 전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71.3%로 비수도권(60.2%)보다 11.1%p 높았다. 특히 ‘적극 활용’ 비율

은 수도권 21.7%, 비수도권 13.5%로 약 1.6배 차이를 보였다. 진학사는 “수도권에 집중된 학원가, 입시 프로그램, 정보 접근성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사교육도 성적순?”…상위권 적극

내신 성적이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율도 높았다. 1등급대 학생의 76.4%, 2등급대의 75.1%가 사교육을 활용한 반면, 6등급 이하에서는 절반 수준(49.6%)에 그쳤다. 이는 상위권 학생들이 내신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맞춤형 전략 수립 및 심화 학습을 위해 사교육을 ‘필수 도구’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상위권 학생일수록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개별 맞춤형 전략을 세우기 위해 사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이 격차가 누적되면 단순한 성적 차이를 넘어 정보·기회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日 “납북자 귀환 노력”…北日회담 타진 경로는
말 아껴

/사진 뉴시스

▲美, 北석탄·철강 中 수출 관여 선박들 유엔 제재
추진

▲이스라엘 포괄적 세제개혁안 발표..“기술산업
계 혜택”

▲“화웨이 칩 쓰면 전기요금 반값”…中, 보조금
카드로 엔비디아 견제

▲중시진핑 “중러 공동이익 키워 세계 평화·발전
기여해야”

▲튀르키예 “가자지구 평화 책임 감수할 것” 국제
보안군에 파병 시사